

‘알제리 태양광발전’ 현지 연수 실시

- 농어촌공사 신재생에너지 기술력, 글로벌 경쟁력 인정받아 -

한국농어촌공사는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알제리 신재생에너지연구소 및 재생에너지위원회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알제리 태양광발전 현지연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 사후관리 현장 사업의 일환으로, 공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한 ‘알제리 태양광발전시스템 전문가 양성과정’의 성과를 인정받아 시행기관으로 선정되며 이뤄졌다.

연수 과정에서는 태양광발전 분야의 심층적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 강의와 실습이 함께 진행되었으며, 알제리 현지의 태양광발전 시험시설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에도 주력했다.

알제리 재생에너지위원회, 신재생에너지연구소, 고등교육연구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선진 태양광 기술과 운영 경험을 습득하고 이를 자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라며, 양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수를 주관한 신홍섭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장은 “공사가 농업·농촌 개발, 수자원관리 분야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국제 협력의 영역을 넓히게 되어 의미가 깊다.”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형성된 협력 관계를 토대로 알제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사의 해외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03년 소수력 발전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꾸준히 확장해 온 공사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공사의 유희자원을 활용한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담당 부서	인재개발원	책임자	부 장	최호진 (031-420-0761)
	교육기획부	담당자	차 장	이성희 (031-420-0763)